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6년
2017년 10월 1일
음 8월 12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안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1년 제215호

불교총지중 종조 원정대성사 열반 제37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 제37주기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

9월 8일 서울 원정기념관 및 전국 사원에서 봉행

원정 대성사 열반 제37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9월 8일 오후 2시 총본산 서울 총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동시에 봉행됐다.

원정기념관에서는 효강 종명 예하를 모시고,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집공과 교정부장 법일 정사 사회로 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효강 종명 예하는 종조 멸도절 법어를 통해 "우리 종단도 이제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창종 당시의 열화 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바르게 하고 대승불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국제적인 불교교류를 통하여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 교화 방안을 개발하려는 노력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우리 총지중이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부회장이 되었고,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자재보살님의 가지신력과 원정 대성사님의 가지 위신력으로 우리 총지중의 모든 종도들이 합

심하여 종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승직자와 교도들에게 당부했다.

1980년 9월 8일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의 역사를 다시 세운 원정 대성사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에서 일직 손(孫)씨 집안에서 탄생하셨다. 일찍이 한학을 익혀 사서삼경에 능통하셨고, 일제 강점 하에 고등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계에 종사하셨다.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서 대성사께서는 불교에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시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셨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밀교수행에 준 제법을 도입하시고, 새로이 총지중을 입교개종 하면서 정통밀교종단을 이 땅에 우뚝 세우셨다.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한 교상과 사상에서 완벽한 밀교를 확립하고,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 전국에 사원을 건립하셨다. 대성사의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의 정신은 오늘날 전국 교도들의 종지가 되어 불퇴전의 불공 수행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제20차 한중일 불교문화우호교류대회 서울 봉은사에서

'한중일 우호교류 지속가능한 교류발전'을 서원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대법회가 9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봉행됐다. 한중일 세 나라 불교도들은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법회를 봉행, 세계평화와 전 인류의 화합과 상생을 서원했다.

이 법회에 참가한 한·중·일 삼국의 불교 지도자들은 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인류 화합과 공존을 위해 불법홍포에 매진하자고 서원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삼국 불교도들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환영사에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가 1220년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 중흥 도량인 이곳 수도산 봉은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사부대중을 대표해 영

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회를 통해 전 인류가 종교화합과 세계평화를 이루는 공존의 시대가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종단협 회장 지승 스님은 '불교'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를 지닌 삼국의 국민과 불자들은 유구한 역사의 흐름에서 회노에 락을 함께해 왔다"면서 "자비 평등, 공생, 세계평화의 불교적 가치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이해하고 서로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끌어 가는 안정적 평화의 틀을 구축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상태에 대해 삼국 불교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한반도 내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연

히 반대한다. 평화를 위한 길은 서로를 적대하고 위협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성 스님은 "삼국 불교인들이 무상심을 발해 매년 모여 정성으로 예불송경 하니 이 수승공덕으로 세계평화 인류행복을 기원한다"며 "인류 모두 삼보에 귀의하기 바라며, 전쟁 없고 재난이 소멸되고 평안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다케카쿠조 스님도 "삼국 불교도는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동아시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제20회 한국대회에서 삼국 불교도는 친선교류를 더욱 두터이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평화 실현과 불법 흥륭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 제20차 한중일 불교문화우호교류대회

한중일 세 나라 불교가 든든한 동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날 법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3국의 전통불교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이날 점심공양

은 한국 불교의 전통 발우 공양으로 진행됐다. 발우 공양을 통해 삼국의 불교지도자들은 공양불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은사·김종열 기자

새로운 증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제90회 추계 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총기 46년 10월 18일 ~ 19일

장소 : 총지중 통리원

대상 : 총지중 전국 사원 승직자

불교총지중

제12회 경로법회

불교총지중 어르신 큰잔치



일시 : 총기 46년 10월 24일~25일

장소 : 경주 대명리조트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네팔 홍수 지역 구호

9월 8일 긴급구호단 현지 급파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네팔 지원사업

홍수피해가 심각한 네팔 남부지역의 구호 활동을 위해 지난 8일 출국한 조계종 긴급구호단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8일 저녁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한 구호단은 현지협력단체 EPF(Ecological Protection Forum)와의 회의를 통해 카트만두에서 남쪽 450km 거리에 위치한 테

라이(Terai) 지역에 대한 구호활동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9일 오전 현장으로 출발한 구호단은 산사태 등으로 인한 도로 유실로 12시간 가량의 이동을 통해 인도와의 접경지역인 라우타하트(Rautahat)구에 도착했다.

이튿날 구호단은 사전에 지역정부(LDO, Local District Officer)로부터 추천

받은 바카리(Bakari)와 바카하(Pakha) 두개 마을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을 위로 하며 피해현황을 살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길을 도보와 보트를 통해 이동한 마을은 폭우로 인해 무너진 가옥과 완파되어 잔해마저 휩쓸려 간 빈터가 곳곳에 있었다.

바카리마을 이장 자야 프라카슈 구브타는 "물이 빠르게 불어나며 1미터 넘게 차올라 지붕위에 올라가 대피해 있었다"며 무너진 집 대신 열기설기 엮은 나무막대에 모기장만 두른 채 생활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지역정부 관계자 우메쉬 바스넷은 "마을 주민들의 여간장 집을 재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 식료품이나 의약품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임시주거공간에 대한 지원을 계획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구호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구호단은 피해지역 주민들 중 5세 미만 아동과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있는 가정에 대해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태종 국민화합 기원 영산대재 원만 회향

9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서 삼회향놀이 시연



▲ 천태종 삼회향놀이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9월 12일 오후 3시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시연한 영산대재의 뒷풀이 마당인 삼회향놀이(충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를 끝으로 5일간 봉행한 수륙영산대재와 생전예수재를 마무리했다. 유주무주 고훨의 천도와 남북통일·국민화합을 기원하며 봉행한 수륙영산대재와 생전예수재를 원만 회

향했다.

이날 삼회향놀이 시연에 앞서 도용 중정예하는 "수륙영산대재와 생전예수재에 동참하느라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 "마음을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은 안거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정진하라"고 가르침을 내렸다.

삼회향놀이는 첫째 마당 중생회향, 둘째 마당 보리회향, 셋째 마당 실제회향으

로 진행했다. 중생회향은 사물개화(불교 사물 설치)에 이어 범주와 바라지 스님의 대화인 개장화두(開場話頭), 한 해의 액을 막아주는 도액축원, 엄마와 딸 셋이 등장해 부르는 민요가창(民謠歌唱) 등으로 꾸며졌다.

보리회향은 범주와 바라지 스님의 대화와 무애설법(無礙說法), 실제회향은 범무연희(法舞演戲), 축원화경, 파장염불, 회향법문으로 끝을 맺었다. 파장염불을 하는 동안 사부대중은 하나가 되어 광명전을 돌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파장염불이 끝난 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무대에 올라 회향법문을 통해 수륙영산대재와 생전예수재를 준비하고 동참한 모든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유주·무주 고훨의 극락왕생과 영산대재 동참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본격화

설정·수불·혜총·원학 스님 후보 등록



▲ 설정스님

▲ 수불스님

▲ 혜총스님

▲ 원학스님

10월 12일 예정된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설정 스님 기호 1번, 수불 스님 기호 2번, 혜총 스님 기호 3번, 원학 스님 기호 4번에 배정됐다.

이번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9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자격 심사 이전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선거법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 자격심사 이후 다음날부터 선거일 1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자가 출마의사를 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거나 집회 등의 행위를 진행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후보들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선거인단에 금품과 특정 중무직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감시단을 출범시키면서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부정선거를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9일 교구선거인단 등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해 선거인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거는 10월 12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오후 3시 투표종료와 함께 개표가 진행돼 당선자를 확정한다.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진각종 종립 위덕대,

입학금 면제·전형료 16.7% 인하



▲ 진각종 위덕대

위덕대(총장 홍옥현)는 2018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입학금 면제를 실시하고 수험생들에게는 전형료를 16.7% 인하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위덕대에 따르면 학부모의 등록금과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금 전액을 위덕스타트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형료는 기존 30,000원에서 25,000원으로 5,000원을 줄여 16.7% 인하했다.

또한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을 확대하고, 지난해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모집하던 일반전형에 면접고사를 추가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은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만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언어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양성을 위하여 보건의료계열인 언어청각치료학과를 신설했다.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전체 선발인원의 97%인 801명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781명, 특기자 전형으로 20명으로 모집한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일반학생(단계별)전형으로 19개 학과(부) 651명,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15개 학과(부) 97명, 사회기여 배려대상자 33명을 모집한다. 정원 외 모집은 특성화·졸업자, 기회균형선발, 학생부 종합전형인 농어촌학생(입학사정관) 등으로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과 우편, 대학장구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면접고사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실시하고, 합격자발표는 11월 20일 이전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위덕대는 지역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어학능력향상을 위해 매년 교비를 지원해 200명의 학생을 선발, 해외 어학연수 장학금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부처님 자비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개천사 이희권 8/25 10,000	원봉 9/15 10,000	박병성 9/11 20,000	혜정사 최영례 8/21 10,000
김위식 8/29 50,000	지선행 9/15 10,000	정경자 9/20 10,000	박영순 9/20 10,000
전세형 9/5 30,000	동해사 탁상달 8/21 20,000	운천사 무명씨 9/11 20,000	최영례 9/20 10,000
관성사 인선 8/21 20,000	탁상달 9/19 20,000	일원어린이집	화음사 무명씨 8/31 10,000
기로스승 상지화 8/21 10,000	만보사 정덕순 8/30 10,000	하재희 8/25 50,000	무명씨 9/4 10,000
수증원 8/21 10,000	밀인사 정정희 9/5 5,000	김용미 8/25 10,000	강승훈 9/11 5,000
밀공정 8/21 10,000	법등 9/11 30,000	정각사 구미자 8/31 10,000	강승민 9/11 5,000
총지화 8/21 10,000	법황사 박미경 9/16 10,000	안한수 9/4 10,000	흥국사 지정 9/15 20,000
법수원 8/21 10,000	벽룡사 양정현 9/3 10,000	지인사 변순개 9/6 10,000	사원명무기명
선도원 8/21 10,000	양지현 9/3 10,000	승효계 9/15 10,000	김갑선 8/21 10,000
법지원 8/21 10,000	권형민 9/3 10,000	허성동 9/20 30,000	이연남 8/29 70,000
일성혜 8/21 10,000	수인사 정순득 9/15 10,000	초록어린이집	최영미 9/11 50,000
불멸심 8/21 10,000	실보사 이순옥 8/24 10,000	황화성 8/25 30,000	무명씨 9/14 10,000
사홍화 8/21 10,000	이순옥 9/5 10,000	총지사 박정희 9/14 10,000	박필남 9/15 10,000
안주화 8/21 10,000	실지사 박병권 8/25 20,000	신용도 9/14 10,000	김갑선 9/19 10,000
혜정 8/23 10,000	황성녀 8/29 10,000	손경옥 9/15 10,000	

8월 21일 ~ 9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총기46년 하반기 스승 정기교육 시행

교학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심화 학습



▲ 하반기 스승 정기교육

불교총지중 중앙교육원은 총기 46년 하반기 스승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중앙교육원 주관으로 서울·경인교구, 대구·경북교구 스승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하였고, 2차 교육 대상은 부산·경남 교구와 충청·전라교구 승직자로 9

월 18일부터 20일 까지 통리원 반야실에서 강연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 정례화 된 스승 정기교육은 총기 45년 10월 26일 제136회 승단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스승의 자기개발 향상과 교화방편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연간 총 16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교육은 불교학(중앙교육원장 화령), 한국불교사(사회부장 지경), 중국 불교사(밀행사 주교 도현)로 구성됐다.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는 “스승정기교육은 교화 현장에서 불교학 전반에 관한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스승님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2박 3일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현장 교화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학과에는 불교학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며 이번 교육의 의의를 전했다. 총지사=인턴김민비기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산하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8월 30일 통리원 반야실에서 전원 참석



▲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후(총지사 서원당)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교사 연수가 8월 30일 중앙교육원 주관으로 통리원 반야실에

서 열렸다. 이번 연수에는 서울 시내 4개 어린이집(초록, 일원, 포레스타, 햇살) 교사 전원들이 동참 했다.

교육에 앞서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는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시는 어린이집 교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지중은 재가 불교로 생활 속에서 불교의 이념을 실천 수행하는 정통밀교 종단으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어린이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신정택 교수가 초청강사로 나서 “나, 우리, 긍정 심리학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중앙교육원은 총지중 산하 종사자들에 대한 인문교육강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통리원 반야실=김태원 기자

법성사(法性寺) 사원 신축의결

총지중 부산·경남 교구 법성사(주교 법선)가 지역 재개발 작업과 함께 신축을 결정했다. 부산의 중심지인 초량동에 위치한 법성사는 도심 재개발이 늦어져 그동안 더딘 발전을 보였다. 총지중 중앙총의회는 8월 9일 부산에서 임시총의회를 열고 원의회가 상정한 법성사 신축안을 의결했다. 법성사는 부산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주변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도심형 수행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법성사는 총기 7년 2월 1일 개설한 자

재 서원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총기 9년 3월 14일 부산시 동구 수정동 1009-30번지 2층을 임차하여 불단을 이전하였고, 지금의 사원은 초량동 422-3번지 김상용 안과병원 건물을 매입하여 법성사로 개칭 사용하다, 총기 12년 4월 28일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156평으로 신축하여 현공불사를 마쳤다. 이번 신축 공사는 부산역 인근 교통 중심지의 지리적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심 사원 성격에 맞게 설계하여 시공 할 예정이다.

불교총지중 총기46년 하반기 종비 장학금지급

총지중(통리원장 인선 정사)은 서울, 경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충청, 전라교구 등에서 선발된 10명의 총지중 장학생에게 총기 46년 하반기 종비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지급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부처님의 진

리를 등불 삼아 학업에 전념하고, 나라와 미래의 주역이 되기를 서원합니다”라며 장학생들을 축원 발원하였다. 총지중 통리원은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해 매학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종비 장학생을 선발 하고 있다.

마니합창단, 국민 화합대회

교성곡 ‘보현행원송’ 합창 공연 참가



▲ 마니합창단보현행원송 합창공연

지난 9월 6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국민화합대회와 ‘보현행원송 축하공연’이 열렸다. 불교총지중 마니합창단은 800여 명으로 이뤄진 연합 합창단의 일원으로 보현행원송 축하공연에 참가하여 큰 울림을 남겼다. ‘보현행원송’은 불교 대중화와 생활화에 앞장섰던 잠실 불광사 창건주 광덕 스님이 ‘회엄경 보현행원품’을 바탕으로 시

를 쓰고, 불교 음악 작곡가인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이 이 곡을 붙인 것이다. 국악과 합창, 독창, 안무가 함께 어우러지는 불교 교성곡이다. 교성곡 ‘보현행원송’은 1992년 초연 당시 불교음악 역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공연으로 ‘불교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합 합창단의 공연은 800여 명의 합창단이 한목소리로 부르는 웅장함과 아름다운 선율로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진주 화음사 탐방하고 올해 ‘유등축제’도 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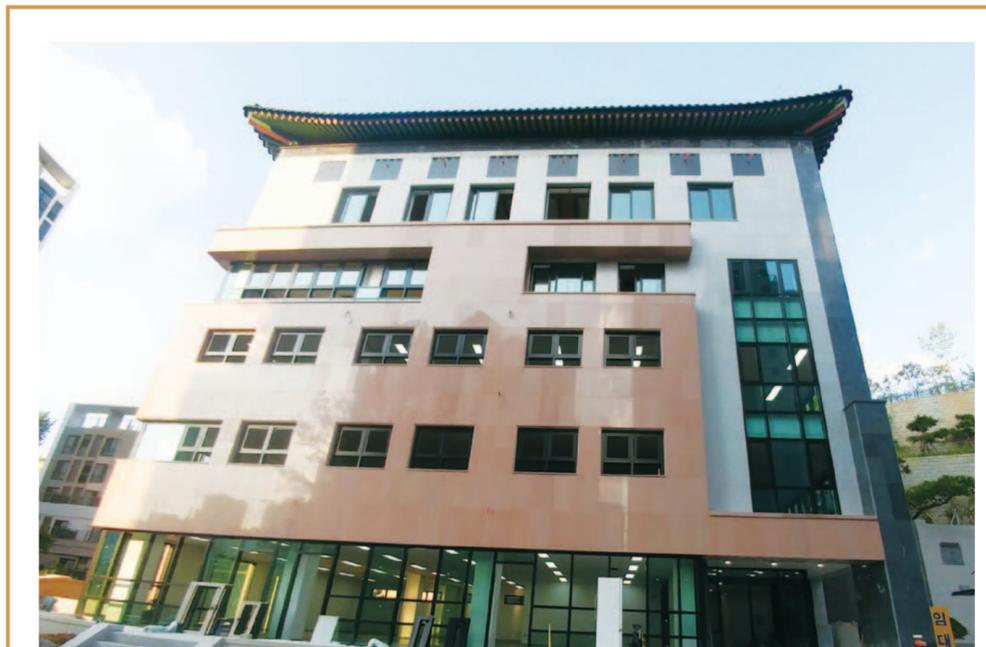
총지중 교도들에게 축제 기간 주차장 개방



▲ 진주 유등축제

불교총지중 서부경남 중심 사찰 진주 화음사(주교 룡경)는 10월1일부터 보름간 개최되는 ‘2017 진주 남강유등축제’에 방문하는 총지중 교도들을 위해 사찰 주차장을 전면 개방한다. 단 방문 전 사원으로 사전 연락을 해야 한다. 전화(055)755-4037

달, 단오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등(燈)으로 선보여 추석 맞춤형 축제로 운영한다. 긴 추석연휴 기간(10.1~10.9)을 감안해 시민과 인근 지역민을 대폭 우대한다. 추석연휴 및 공휴일 관계없이 진주시민은 주중(월~목) 무료입장, 경남도민·남중권 발전협의회 5개 시·군민(순천·여수·광양시, 보성·고흥군)은 주중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전 입장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은 진주남강유등축제 홈페이지(www.yudeung.com), 입장권 판매 대행사인 스마트스(www.smartix.co.kr), 네이버, 소셜커머스(티몬, 쿠팡, 위메프), 옥션, 지마켓, 진주유등축제 스마트폰 앱으로 구입 가능하다.



관성사 헌공 불사 봉행

독립문 관성사 불사를 마무리 하여 헌공 불공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수희 동참 하신 그 공덕으로 법락 누리시기를 서원합니다.

- 관성사 주교 인선 합장 -

일시 : 총기 46년 10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관성사 서원당

지상 설법

진언 외우는자 오역 중죄도 바람에 날아가 성불 할 것이다



지인사 주교 승효제

“
 끊인 국이 너무 짜면 맹물 더 부으면 됩니다.
 전생 업이 많다 싶으면 금생에 많은 선행 공덕 쌓으면 해결됩니다.
 이러한 참회와 정진, 선업공덕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

이 세상 어느 누구나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지 않는 이는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사악함에 빠지게 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더러운 물결에 되고 덕을 쌓았는데도 박복하게 되며, 착한 일 하는데도 몸에 흉한 일이 생기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화가 닥치고, 살생을 하지 않는데도 요절하기도 하니 이는 모두 전생의 업보(業報)입니다.

능엄경에는 '진언(眞言)을 외우는 자는 오역 중죄가 바람에 모래가 날리는 것 같이 마음에 성불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선의 대가(大加)인 청허휴경(淸虛休景) 스님이 쓰신 선가귀감에서는 진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 진언(眞言)을 외우는 것은 금생에 지은 업은 쉽게 다스릴 수 있어 자기 힘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전생에 지은 업은 지워 버리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신비한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정진(精進)하여 더 짓지 않고 전생의 숙업을 말끔히 지우지 못한다면 어찌 내 노력만으로 잘 살아가겠습니까?

회엄경에 '과거가 궁금한가? 지금 받고 있는 그것이다.' '미래가 궁금한가? 지금 지어가고 있는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금생이나 전생업이 소멸되면 하늘에 구름 걷히고 맑은 하늘처럼 밝게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지

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옴마니반메혹 진언으로 모든 악업 소멸되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가끔 보면 나는 왜 해도 안 되느냐는 분이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봅시다. 불교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과연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했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지극한 참회와 정진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수행을 하세요. 업에 매달려서 끙끙대기 보다는 지은 업 보다 훨씬 많은 선업 공덕을 쌓으면 됩니다. 끊인 국이 너무 짜면 맹물 더 부으면 됩니다. 전생 업이 많다 싶으면 금생에 많은 선행 공덕 쌓으면 해결됩니다. 이러한 참회와 정진, 선업공덕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래서 참회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된다고 해서 참회만을 별도로 떼어 내어 기도 내지는 수행의 방법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소의경전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의 말씀대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면 더 좋습니다. 육바라밀은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의 여섯 가지 실천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면 해탈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섯가지 다 실천하기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하나만 잘 실천해도 해탈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한 보시(布施) 바라밀이 내가 실천하기가 쉽겠다 싶으면 보시바

라밀을 행하고, 아니면 지계(持戒) 바라밀을 실천해 보세요. 또 인욕(忍辱) 바라밀이 내게 좋겠다 싶으면 인욕하세요. 우리 수행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인욕 하는 것도 내가 참는다는 생각없이 참는 것이 인욕 바라밀입니다. 정진(精進) 바라밀, 선정(禪定) 바라밀, 반야(般若) 바라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적당한 수행 방법이 있다면 그것 한가지만 잘 실천해도 해탈의 길에 이르고 있습니다. 육혹 모두의 실천은 어렵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 공덕으로 꼭 한량없는 복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첫째 보시(布施)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베풀어 괴로움에 빠진 이웃의 마음에 평화를 주며,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재물을 베풀어 기쁘게 해주며, 진리에 목말라하는 이들에게는 감도의 법문을 내립니다.

둘째 지계(持戒)란 계율을 지키며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올바르게 행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스러운 말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도덕적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욕(忍辱)이란 참고 감내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치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극복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

게 화내지 않고 길게 용서하며 참아내는 행위는 내 마음은 물론 이 사회를 조화와 평화로운 상태로 이끌게 됩니다.

넷째 정진(精進)이란 끊임없는 불공의 노력을 말합니다. 적당히 쉬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흐트러짐이 없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움직이며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보편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이며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일체의 망상을 잡고 집착이 마음을 다하여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선정(禪定)이란 정진을 통해 마음이 어느 한 대상에 집중되어 통일된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렇게 통일된 상태에서는 나도 잊어버리고 상대도 잊어버립니다. 그저 맑고 순수한 의식만이 살아 숨 쉴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모든 일을 아무런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의 실재를 정확히 응시하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섯째 반야(般若)입니다. 반야는 지혜를 말합니다. 반야의 지혜로 관조하여 나와 너의 분별, '나라는 의식조차도 떠나기 때문에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무차별(無差別)적 보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욕행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나라는'그림자조차 없기에 이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육바라밀의 근저에는 지혜(바라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칼럼 지혜의 눈

불교 왕국 부탄이 던지는 화두(話頭)

“거센 세속화 물결에 시름 깊어지는 부탄”
 “불교적 사유, 새로운 대안 제시 가능성은?”

올해는 여러 지인들이 히말라야의 작은 불교 왕국 부탄을 유난히 많이 방문했다. 인구의 절대다수가 불교를 신봉하며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부탄 방문 소감과 사진이 SNS를 통해 올라왔다. 부탄 여행의 백미라는 탁상사원은 깎아지른 높은 절벽 위에 서 있는 유서 깊은 수행처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부탄의 속살은 어떨까. 행복지수 만큼 국민들은 실제로 행복한가. 이방인들 대부분은 행복지수와 피부로 느끼는 행복감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전한다. 현재의 부탄 국왕은 서구 문물을 접한 뒤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나름의 길을 모색했다고 하는데, 무상의료와 무상교육만 해도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듯싶다.

하지만 갈수록 세속화가 심해지는 부탄 사회도 속살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상층으로 갈수록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데,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유혹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일 듯싶다. 심지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과연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부탄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스님은 '부탄이 행복한 나라는 이미지를 팔고 있고 그 이미지가 진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보는 눈이 없다면 그리고 그 진실이 각자에게 다른 의미를 갖는다면 진위를 가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탄이 새로운 가치를 심고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부탄이 새로운 발전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뜻일 듯싶다.

아시안의 불교국가로 행복지수가 높다는 라오스도 사정은 비슷한 것 같다. 필자가 10년도 더 전에 기자단의 일원으로

로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 한 고위직 공무원은 라오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낙후돼 있다며,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나 급속한 산업화 신화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제 급속한 경제 발전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래도 경제 발전을 이뤄보고 싶다고 답했다. 그 속내가 궁금한데, 물질적 발전의 여망을 더 이상 방기하지 않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도층의 절박한 심정을 읽을 수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보다 바람직한 사회는 어떠한 모습이며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같은 화두보다는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움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 한다. 그러는 사이에 민생은 방치되기 일쑤다.

해방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 모델을 따랐던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일제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한 가운데 기득권층의 권력 지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래도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경험은 다행스런 일이다. 기존과 조금 다른 길도 모색해볼 수 있었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조금씩 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 길이 아니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대결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만들어 낸 대안들이 한계가 있음을 직시했다면 새로운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일체가 두루 연결되고 상호 의존해 있다는 불교의 연기적 사유가 주목받는 이유다.

김봉래
 불교방송사업위원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초발심자경문

화령 법당

✓ 쉬운 번역!
 ✓ 간결한 표현!
 ✓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령 번역 / 불교종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7

대승장엄보왕경

『관음신앙의 밀교적 배경 1』



나를 수가 있다. 현교는 현로불교(現露佛敎)의 줄인 말로 겹으로 나타내어 설해진 가르침을 말하고, 밀교는 비밀불교(秘密佛敎)의 줄인 말로 산스크리트어로 구오야냐(guhavyāna)이며 비밀승이라 번역한다. 이외에도 진언승(Mantrayāna), 다라니승(Dhāranīyāna), 금강승(Vajrayāna), 탄트라불교(Tantric Buddhism)등의 용어로 부러

화한 만다라로 나타내어 설명하고 있다. 즉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이 그 몸과 말과 뜻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내어 거기에 부처님이 깃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생들이 깨달음이라는 신비스러운 세계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직접 증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깨달음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

자나부처님의 신체적 활동의 다른 모습 이요, 모든 음성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언어적 활동이며, 온갖 마음의 움직임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심적 활동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세 가지 활동인 신업, 구업, 의업을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활동 그 자체로 보아 신밀, 구밀, 의밀의 삼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여 자기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자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삼밀수행이라 한다.

불교는 석가세존이 중인도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어 펼친 가르침이다.

붓다가 깨달은 진리를 법(Dharma)이라 하였으며 이것은 붓다가 세상에 출현 하진 안 하진 무시이래로 있어 왔던 영원히 존재하는 변치 않는 진리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은 역사적으로 근본불교시대, 아비달마불교시대, 대승 불교시대를 지나서 밀교시대로 전개하여 왔다.

불교는 시대를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법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 모두가 붓다의 가르침인 것이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의 가르침을 나누면 현교(顯敎)와 밀교(密敎)의 둘로

고 있다. 여기에서 비밀이란 부처님의 비밀한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밀교는 곧 부처님의 비밀한 세계를 드러내어 설한 것이다. 비밀은 자세한 신밀, 구밀, 의밀의 삼밀로 이루어져 있다.

붓다가 깨달은 세계는 말이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이며, 수행자가 스스로 체험하여 증득하여야만 하는 세계이다. 밀교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를 진언다라니로 상징하고, 부처의 인계(印契)로써 상징하며, 부처와 우주의 일체 세계의 본질을 독특한 선과 색대로 도상

여 부처와 행자가 일체화가 이루어지는 수행을 삼밀수행이라고 한다.

삼밀이란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활동 즉 신체의 활동, 언어의 활동, 마음의 활동을 신·구·의의 삼업이라 부르고 있다.

거기에 대하여, 밀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과 일체화된 경지에서 바라보면 근본적으로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활동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즉 이러한 경지에서 현실세계를 바라다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법신 비로

밀이라 한다. 그러나 중생의 모든 활동이 그대로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활동과 다름이 없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중생에게는 비밀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래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범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여 자기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자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삼밀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외원종단 탐방

대한불교원효종(大韓佛敎元曉宗)

해동초조 원효대성사의 원용무애의 원찰



대한불교원효종은 1963년 초대 종정인 김경택(金敬澤)스님 등이 대승불교 사상의 구현체이며 민족정신 문화의 창조자인 원효대성사의 대도를 받들어 민족 문화를 창조하기로 하고 '대한불교원효종포교원'을 창종했다.

창종 이후 2, 3, 4대 종정을 역임한 해인(海印, 丁壽鎰, ~1972)스님에 의해 종단의 조직이 정비되고 원효사상을 중심으로 이념종단의 중지를 뚜렷이 했기 때문에 불교계 석학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다. 특히 학식과 수행을 겸비한 해은 법홍(法弘, 李鍾五, 1915~2003)스님이 8, 9, 10대 종정을 역임 중 2003년 3월 10일 세수 89세에 원적하고, 2008년 5월 현재 제 14대 종정 청법 벽송(淸法碧松)스님, 총무원장 향운(香雲)스님으로 이어지고 있다.

1967년 『원효성전』을 간행하여 중지를 바로 세우고 1998년에 원효의 저술 100부 240여 권 중 현존하는 22종의 저서를 집대성하여 국역으로 6책을 한 절로 간행(약 5,000절)하여 반포 한 것은 한국불교사상 획기적인 대작불사였다.

종단 산하단체로는 원효학연구소와 원효사상실천승가회가 있어 끊임없는 원효사상 선양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700여 사찰과 1,100여명의 승려가 소속되어 있다. 특히 각도 교구 중 비구니 교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원효불교 대학'을 인가 받아 운영하고 있다. 원효종 총 본산은 경주 망월사(望月寺)이고, 대본산은 부산금수사이다.

원효종하면 아낌없이 빈민을 구제하고, 호국불교의 영령들을 모신 사찰인 부산금수사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금수사는 예부터 국운과 관련된 호국사찰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뒤 사명대사가 조선인 포로의 귀환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머물며 기도했던 곳이다. 금수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해인사 법홍 스님이 주석하면서다.

1950년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야말로 부산 전역은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피난민들의 처절한 삶을 목도한 법홍 스님은 그 이름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오갈 곳 없는 이들에게 절 마당을 내주었다. 이내 소문이 퍼지자 금수사에는 도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이어졌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의면할 수 없었던 스님은 교육청 소유 산림 1만2000평을 불하받고 주변 땅 1000평을 매입해 모두 피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제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으로 피난 온 초대 부통령 이시형 박사가 찾아왔다. 금수사의 보살행에 감화된 이 박사는 국난극복의 염원을 담아 금수사에 윤봉길, 안창호, 안중근 등 애국지사의 위패를 모셔 달라 간청했다. 금수사는 애국지사 22인의 위패뿐 아니라 만해 스님 등 민족대표 33인의 위패까지 모시고 이들을 위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순국선열 추모법회는 금수사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매년 원효 스님 탄신일에 맞춰 봉행되고 있다. 현재 금수사가 호국도량으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효종 대종사는 우리나라 불교의 울맥을 이은 율사로서 24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천태종 율왕사에서 거주하면서 천조사라는 불교강원을 2년 다녔다. 귀국 후에 전서포교사로 중국에 가던 중 평양에서 해방을 맞아 발길을 금강산으로 돌려 그곳에서 수행 정진했다.

6·25전쟁 당시 법홍스님은 해인사에서 효종스님과 같이 절을 지키고 있었다. 당시 경찰기의 폭격을 막아내지 못했던 세계문화유산이 된 팔만대장경은 지금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범력이었다.

지금 금수사는 부산 앞바다가 흰내려다보이는 구부산 편백나무 군락지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살려 다도와 명상, 휴식이 가능한 힐링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역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지역 어르신 점심공양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도 계획 중이다.

400여년 구봉산에 기대 살아온 사람들의 귀의처 금수사는 앞으로도 서민을 지키는 사찰로 원효대성사의 원용무애의 정신이 이어지는 향화가 끊이지 않기를 서원한다.

그때 그시절

총기 원년(1972년) 10월 3일	준제관음상 · 현도만다라 준제관음상(準提觀音像),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 인쇄, 왕생다라니(往生陀羅尼) 고안 제작 <불교총전(佛敎總典)>, <밀교장경(密敎藏經)> 역경(譯經)
총기 2년(1973년) 10월 20일	5대 정진사항을 결정 발표 자성일 첫 시간 회향정진 49일정진에 서원사항을 결정 발표
총기 3년(1974) 10월 21일	제4회 중앙총회 개최 및 결의사항 1)총지명, 육합상(六合相) 교기 제작 배부 2)월말 보고제도 실시·수입지출 보고 3)보은심고법(報恩心告法) 실시



도현정사 중국불교옛보기

불교경전의 한역(漢譯)

경전의 번역작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서 제왕의 보호와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에 전해진 경전들은 다라니를 제외하고 모두 한문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중국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로 인하여 불교 전래가 시작되면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경전의 한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후한 이후 송대(宋代)에 이르기까지 천년 동안 이러한 작업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또한 당의 고승 현장삼장의 역경사업을 완성시킨 변경원(遍靜院)처럼 국가적 사업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 번역사업의 결과로 세계의 번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한역대장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중국불교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과 극복이 있었다. 그중에서 언어체계의 차이는 불경번역에 있어 매우 극복하기 어려

운 문제였다. 중국어는 어미의 변화가 없는 상형문자이며, 문장형식으로 볼 때 단음절어(單音節語)(한단어가 한문장이 되는 형식)이다. 반면 인도어는 어미변화가 매우 심하며, 자모체계로 되어 있으며 다음절어(多音節語)(여러 단어가 모여 한문장이 되는 형식)이다.

중국어는 체계적인 문법을 가지지 않으나, 인도어 특히 산스크리트어(Sanskrit)는 질서정연하고 매우 정교한 문법체계를 가졌다. 문체를 살펴보면, 중국 문체는 간결체이고 친숙한 자연물로부터 은유적 표현을 빌려오며 구체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반면, 인도어의 문체는 만연체이며 은유에 있어 과장적임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많다.

초기 단계에 중국에 들어온 외국의 승려들은 중국어에 거의 익숙하지 못했고,

또 불교성전의 원어를 판독할 수 있는 중국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도 원전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번역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원어에 정통한 외국의 승려가 인도어 혹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원전을 암송하거나 저술하면, 인도어와 인도 주

번 국기인 서역국어를 구사하는 이가 번역하고 다시 서역국어와 중국어 2개 국어를 사용하는 해석가의 도움으로 조약한 형태의 번역이 완성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중국인 보조원이 다듬고 교정하여 한자로 기록하여 나갔다. 4세기 말엽까지는 외국 승려와 그의 제자들에게 의존 중한 사적(私的) 활동으로서 그러한 집단 작업이 유지되고 외국승려의 작업을 돕는 제자들은 승려와 속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불교가 황실과 고급 관료들의

후원을 받게 된 5세기 초엽부터는 간혹 12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번역계획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수 세대에 걸쳐 대를 이어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불경 번역가라는 특수한 부류가 형성되었다.

결국 본격적인 번역작업은 대개 국가사업으로서 제왕의 보호와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개인적으로 진행된 예는 흔치 않았다. 그 번역의 장소는 궁전의 일부 건물에 사용되기도 했고 별도로 건립된 역경원(譯經院) 또는 변경원(變經院)이 이용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번역작업은 혼자서 하는 경우가 드물고, 몇 사람부터 몇 십 또는 몇 백의 인원이 참가하는 협동 작업이었으므로,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 이후에는 번역관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유물로 보는 밀교

내원정사 진언집(內院精舍 眞言集)
부산광역시 서구 엄광산로40번길 80 (서대신동3가, 내원정사)
시대 : 조선시대



▲ 남해용문사 청동반자

효종 9년(1658) 설악산 신흥사에서 간행한 1책의 목판본으로 이러한 종류의

서책으로는 이른 시기의 화귀 서책에 해당되며, 선조 2년(1569) 무등산 안심사(安心寺) 본(本)을 모각으로 권말의 발문(跋文)이 낙산사 도원으로 바뀐 것 외에는 안심사본과 같다.

이 책은 밀교(密敎)가 우리나라 불교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참고 자료가 되며, 한글 자모의 용법을 설명한 언본과 범자(梵字)를 한글로 설명한 실담장(悉曇章)은 국어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40. 포도수(蒲萄手) 진언



옴 아마라 검제이니 사바하

만약 오곡 백과가 풍성하기를 바라면 이 진언을 외우라



김기자의 사/원/탐/방

지인사



십정동에 울려 퍼지는 옴마니반메흠 정진소리

열 개의 우물인가 뜨거운 우물인가?

십정동은 구한말에는 인천부 주안면 십정리 지역으로 우물이 열이 있으므로 열우물 또는 십정(十井), 십정리라 하였다. 또 일설에는 현 상정초등학교가 있는 위쪽에 큰 대동우물이 있어 물량이 많고 아무리 추워도 물이 따뜻한 열(熱)이 많이 나는 우물이라 하였다는 말도 있다.

백운역에서 동암역 사이를 열우물 고개라 하고 이 고개 너머 산중턱에 있는 마을을 열우물이라 한다. 열우물은 다른 마을에서는 대동우물 하나 과거에도 온 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몇 날 몇 달이 걸렸는데 이 마을에서는 혼자서 몇 시간이면 우물을 팔 수 있어서 밋 집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물을 파서 한 마을에 우물이 열 개도 넘는다고 하여 열우물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 불교총지중 지인사 약도

서민들의 가난한 삶의 터전

열우물마을이 생긴 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이다. 동구 만석동과 주안 그리고 서울에서 철거민들이 모여들어 무허가 집짓기가 시작

되면서 달동네가 형성되었다.

세월이 흘러 마을 곳곳이 흑백사진처럼 낡고 빛 바래지자 몇 년 전부터는 이 마을에 터를 잡은 '거리의 미술팀'이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담장과 계단, 골목 곳곳이 그림으로 가득차자 사람들의 발길도 끊없이 이어졌다.

십정동 골목을 걷다보면 이웃이 떠난 낡은 담벼락 옆 계단에 앉아 푸성귀를 다듬는 할머니, 오래된 문을 닫아 빗바랜 간판들, 햇볕 속에 말라가는 빨래와 나물, 호젓한 골목에 가득한 화분들이 여유롭게 인사를 건넨다. 인천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며 고층 아파트와 불과 몇 미터 간격을 두고 풍경이 교차된다. 최근엔 이 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빈집들이 많고 노후화가 심해져 뉴 스테이 체계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머지않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인천의 마지막 달동네라 일컬어지는 이 마을의 풍경도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남게 됐다.

번지에 부평선교부 설단불사를 봉행하고 정혜원(正慧願) 전수가 주교로 부임하면서 교화의 문을 열었다. 총기4년 10월 28일 입정서원당으로 개칭하였고, 총기 5년 5월 25일 부평동 38-37 대지 69평의 건물을 매입하고 지인사로 명명한다. 지금의 사원은 1995년 11월 11일 준공을 했다.

이 지역은 경인선 철도가 지나는 구간으로 넓은 대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데다 경인선(京仁線)전철·경인고속도로 등이 통과하여 영등포공업지대와 인천임해공업지대·주안(朱安)공업지대와 부천·영등포를 잇는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지가 되었다. 공업단지 내에는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비롯하여 섬유제품·전기기기·전자기기·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제품·금속제품 및 자동차부속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밀집해 있고, 생산품 가운데 많은 양이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다. 공업의 발달로 인구도 급증하여, 인천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이다.

수도권 교화의 발원지 지인사

지인사는 총기2년 인천시 북구 부평동65-25

그 만큼 산업화 시대에 지방을 떠나 정착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마을에 비로자나 법계궁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주교: 승효제 전수

전화: 032-528-274

주소: 인천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2동 578-1)

지인사 역대주교

- 총기 2년 정혜원 전수
- 총기 9년 정계 정사
- 총기 11년 묘법정 전수
- 총기 19년 대자행 전수
- 총기 21년 청암 정사 일성혜 전수
- 총기 29년 연등원 전수
- 총기 39년 지성 정사 승효제 전수

지인사 법회 안내

- 자성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추석, 명절 불공
10월 4일
- 통일음악예술제 및 경로법회
10월 24일 ~ 25일
- 11월 월초불공
10월 30일 ~ 11월 5일 오전 10시

지인사 이지혜 보살 이야기

남들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마음 편한 것임을 똑똑히 가르쳐 준 총지종 지인사

저는 강화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 쫓아다니며 총지종에 다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따라 다니기만 한 거지요. 머리가 크면서부터는 학업이 바빠지고 친구들과 놀기도 바빠 절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습니다.

종교라는 것에는 막연하게나마 늘 관심이 있었지만 불교와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갈 수 있는 안식처, 기댈 수 있는 종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뭔가 아닌 것 같았고, 성당도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위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엄마가 다니고 있는 절에 다니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언젠가 들었던 저의 출생에 대한 엄마의 꿈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태몽과 별개로, 엄마는 저의 출산이 임박했었을 때 즈음, 세 명의 보살님이 서원당에서 달려 내려와 아이를 받아주려 왔다고 하는 장면의 꿈을 꾸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수월한 마음으로 총지종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총지종을 좋아하고 또 추천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도가 평등하고, 또 모든 신도를 평등하게 대해준다는 게 참 좋습니다.

둘째,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정도로만 불공을 할 수 있다는 것. 스승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불공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총지종은 다른 종교들과 차별점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화도에서 여기 인천 지인사까지 매주 엄마를 모시고 온답니다. 저는 사

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지종을 만난 후로 달라졌습니다. 날벼락처럼 급작스럽고 커다란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염주알을 돌리면서 이전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구나, 하는 소소한 깨달음의 기회를 거의 매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을 선생이기 때문에, 반에서 가장 잘 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나의 아이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을 힘들게도 하지만 아이를 더 힘겹게 할 수 있다는 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불공을 하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

며 방향의 시간을 가질 때는 제가 불공의 참매력을 안 직후였습니다.

덕분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반성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불공정진으로 아이의 방향은, 기간도 그리 길지도 않았고 깊이도 그리 깊지 않았습니니다.

만일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잣대로만 아이를 대했다면 얼마나 더 아이를 그릇되게 만들었는지 생각만으로도 아득해집니다.

총지종으로 인해 커다란 지식보다는 깊은 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상대를 만나면 비교적 빠르고 날카롭게 상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

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챌 때가 많은데, 이 역시도 총지종을 다니면서 갖고 닦은 센스입니다.

예민한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는 동료교사들을 만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남들과 더불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똑똑히 가르쳐 준 게 바로 총지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은 총지종을 다닌 것이라고 자신 있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김기자와의 대답 - 홍순유 보살

연꽃으로 피어난 불공의 원력

인천에는 총지종의 두 사원이 자리하고 있다. 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시 북구에서 부평구로 이름을 바꾼 이곳에 시범사, 지인사 두 사원 모두가 오랜 세월 교화의 도량으로 큰 틀을 이루고 있다.

최근 지인사에는 웃음이 넘치고 있다는 이형자 통신원의 제보를 받은 기자는 그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해졌다. 울헤처럼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면서 무슨 좋은 일인가? 한여름 더위를 불공으로 이겨내서 그런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통신원의 제보에 지인사 승효제 전수님께 사진 약속을 하고 자성일 불공 때 인천으로 차를 탔다.

부평은 초행이라 자동차의 네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서울 순환 고속도로를 거쳐 송내 나들목으로 진출했다. 직진과 우회전을 거쳐 골목으로 접어들니 바로 지인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네비게이션의 잘못된 안내로 골탕을 먹

은 적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그 성능에 만족했다.

여러 총지종 사원을 방문 취재해 보았던 지인사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깔끔하다는 느낌이다. 사원 마당을 들어서니,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하다. 연꽃을 피운 여러 개의 수조도 보이고, 사원의 분위기도 다는 잘 가꾸어진 공원에 온 느낌이다.

자성일 불공을 모두 마친 후 교도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단체 사진을 먼저 찍어드렸다. 기왕 왔으니 최소한의 서비스는 기본 아닌가? 다함께 공양을 한 후, 서원당에서 홍순유 보살과 박옥선 부회장, 최광희, 김태순 감사, 강정희 각자님, 신정희 간부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나는 보살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보살님, 지인사에 얼마나 기쁜 일이 있길래... 서울까지 소문이 났습니까?” 보살님은 수줍은 웃음을 띄우며 “우리 사원이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꽃들이 너무 예뻐 교도들의 얼굴이 꽃처럼 환해져 그런가 봅니다.”라 말한다. 그러면서 꽃들을 정성들여 가꾸어주시는 지성 정사님과 승효제 전수님의 여름동안의 노고에 감사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박옥선 부회장이 “간짜 경사는 보살님 댁에 있습니다.”며 “보살님 아드님이 이번에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귀가 번쩍었다. “아 그런 경사가 있었군요.”

**불공 공덕으로
아들이 무사히
군인의 본분을
다했다**

홍순유 보살님의 아들은 이 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였다. 홍순유 보살의 아들 강인식 소령은 1남 2녀 중 막내로 대학을 졸업하고 ROTC로 임관해 직업군인의 길을 가고 있었다. 어떤 것 먹이 때부터 보살님의 등에 업혀 지인사를 다녔다 한다. 지금도 휴가 때면 지인사에 들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에 감사의 불공을 드린다.

어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보살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병으로 의무 복무만 하는 것도 아닌 장교로서 병사들을 통솔해야 하는 직책은 먼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홍순유 보살님은 강 소령이 입대하는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위한 불공을 올렸다. 보살님의 불공은 우주법계를 움직여 강 소령에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을 느끼게 해 주기도 했다. 어

느 날, 강 소령이 보직을 옮긴 이후 전근무처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겪었다.

이뿐이 아니다. 전방 GF에서 근무 중, 차량 사고를 극적으로 피한 일 등등 이런 일들을 겪으며 하루도 끊이지 않았던 홍보살님의 불공의 힘이라 여겼다. 군대는 매일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라 매일 매일이 긴장 속에 있다.

홍보살님이 총지종에 입교한 사연 또한 남다르다. 경기도 화성의 부유한 집에서 자란 홍보살님은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인 양장기술자였다. 부평 토박이인 강정희 각자님을 만나 이곳으로 왔다. 당시 부평에는 양장 원단을 만드는 공장들이 있어 작은 양장점을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갔다.

1973년 어느 날, 당시 정혜원 스승님이 법의를 만들고자 오셨다. 홍보살은 단번에 스승님께 반했다 한다. 저리 멋진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남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정혜원 스승님의 교화로 바로 총지종에 입교해 오늘날까지 39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정진에 임했다.

홍보살님의 수행 기관이 바로 지인사의 역사인 것이다. 강정희 각자님도 열정적이다. 사원의 힘든 일을 도맡아 하시고, 홍보보살님이 신정희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 두 분의 이름다운 모습에 한참을 넋을 잃고 얘기를 들었다.

지인사가 인천 교회의 중심 도량인 이유가 있었다. 밤 낮 없는 수행정진으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두루 미치는 성취의 도량 지인사. 그곳에는 자애로운 두 분 스승님과 사원을 내 집 같이 생각하는 교도들이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사원을 나서는데, 배웅해 주시는 홍보살님과 각자님의 모습이 한 쌍의 연꽃으로 어른거린다.



보타닉가든 해외직구전문점
BOTANIC GARDEN
010-3469-1588 동인천점



보타닉가든 동인천점

청정지역 뉴질랜드에서 온

건강보조제, 어린이 영양제 및 화장품피부관리, 등관리

점장 허 화 영 (지인사 교도)

인천시 동구 송현로 38(송현동 158 송현프라자 102호)
전화 : 010-3469-1588



불교총자중 밀교연구소장
법천사주교 법경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밀교문화와 생활』(9)**

『대일경』의 계율

밀교의 계율을 보리심계라 한다

대일경에 나타난 계율은 삼귀의계, 근본오계, 십선업도[십선계], 사중금계와 십중금계이다. 여기에는 중학법도 있다.

『대일경』에 나타난 계는 초기불교의 율장처럼 바라계목차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계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교설과 作法·作法과 연결되어 설해지고 있다. 따라서 바라계목차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율이라기 보다는 계의 성격을 띠고 할 수 있다. 『대일경』에 설해진 계로는 삼귀의(三歸依)와 재가오계(在家五戒), 십선업도(十善業道), 사중금계(四重禁戒), 십중금계(十重禁戒) 등이 있다. 그리고 계라고 할 수 없지만, 중학법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여러 품에서 다양하게 설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자의 자격과 법을 전할 수 있는 근기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제자의 10가지 덕성, 제자의 4가지 종류, 제도해야 할 자의 7가지 덕, 그리고 아사리의 13가지 자격, 아사리의 종류와 자질, 진언수행의 의례와 금계적인 내용들이 설해져 있다.

삼귀의는 불·법·승에 대한 귀명 뿐 아니라 삼신(三身)과 삼인(三印)에 대한 귀의도 포함한다

삼귀의는 초기불교의 아함이나 율장에서부터 이미 언급되어 왔던 것이다. 『장부』의 「소나난타경」에 처음 삼귀의가 언급되었고, 지금과 같은 삼귀의문의 정형은 『쿠타카파타』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그 정형구는 ‘저는 불에 귀의합니다. 저는 법에 귀의합니다. 저는 상가에 귀의합니다’는 내용이다. 줄여서 불법승(佛法僧)이라 하며, 이를 삼보(三寶)라고 부른다. 세 가지의 보배라는 뜻이다. 따라서 삼귀의는 삼보에 대한 귀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불교신자가 되려는 자는 제일 먼저 삼귀의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가을에 봉행되는 보살계 관정수계법회에서 삼귀의계를 받게 될 것이다. 경전에는 삼귀의(三歸依) 외에 사귀의(四歸依)를 설한 경우도 있는데, 『보살영락본업경』에 귀의계(歸依戒)를 더하여 사귀의를 설하고 있다. 삼보 다음으로 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수행에 있어서 계를 정(定)과 혜(慧)로 가는 사다리요 징검다리라고 말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삼귀의는 불법승의 삼보에 대한 귀의를 말하지만 밀교의 『대일경』에서는 법

신·보신·화신의 삼신(三身)에 대한 귀의를 말하고, 또 여기에 배대되어 있는 세 가지의 결인[三印]에 대해 귀의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삼귀의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 삼귀의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하여 오귀의를 설하고 있다. 즉 불법승 삼보 뿐만 아니라 진언과 밀인에 귀명한다는 것이다. 밀교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계상(戒相)이다.

수계식에는 반드시 진언과 결인이 가미된다

그리고 수계식에서도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수계건도와 달리 진언과 결인 등이 가미된다는 점이다. 초기불교나 아비달마, 대승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오계에서도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가 일반적인 오계이지만 불음주 대신에 불사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대일경』의 오계다. 십선업도는 열 가지 선업도를 말하는 것으로, 초기불교와 아비달마, 대승불교의 십선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초기불교나 아비달마에서 십선업은 계라기 보다 업설에 입각한 수행교설에 불과하지만 대승과 밀교의 『대일경』에서는 계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십선계라

부르고 있고, 『대일경』에서는 십선업도, 십선계라 부르고 있다.

보리심을 계체로 삼고 있는 계(戒)가 사중금계(四重禁戒)와 십중금계(十重禁戒)이다

『대일경』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계는 사중금계와 십중금계이다. 보리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교의 계를 보리심계(菩提心戒)라 한다. 즉 보리심을 계체(戒體)로 하고 있다. 사중금은 네 가지의 가장 무거운 죄다. ①정법을 버리지 않는다 ②보리심을 버리거나 여의어서 안된다 ③일체 법을 아끼거나 인색해선 안된다. ④ 중생에게 이익되지 않는 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범하면 추방된다. 그러나 율장과 달리 참회를 하면 바로 면죄된다. 십중금은 사중금에 여섯 가지를 더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첫째, 보리심을 퇴실하지 않는다. 성불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삼보를 버리고 외도에 귀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법(邪法)이기 때문이다. 셋째, 삼보와 삼승의 교전을 비방하지 않는다. 불성을 배반하기 때문이다.

넷째, 깊고 깊은 대승경전에서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혹을 내지 말라. 범부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미 보리심을 발한 자에게는 이러한 법을 설하여 보리심에서 퇴전하여 이승(二乘)에 향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삼보의 존자를 끊기 때문이다. 여섯째, 아직 보리심을 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법을 설하여 그로 하여금 이승(二乘)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서 안된다. 본원(本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곱째, 소송과 사건을 가진 자에 대하여 심묘한 대승법을 경솔히 말하지 않아야 한다. 비방을 하고 화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여덟째, 사건을 내지 말아야 한다. 선근을 끊기 때문이다. 아홉째, 외도의 앞에서 무상보리의 妙戒를 갖추었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그로 하여금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러 한 것을 구하여 얻지 못하면 보리심에서 물러가게 되고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열 번째, 일체중생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없는 일은 짓지도 말고 사람을 시켜서 짓게 하지도 말고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타법과 자비심에 서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아촉금강 이원성 극복의 극치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반야, 방편 수행도의 극치”

〈비밀집회판뜨라〉의 출현은 인도불교의 흐름을 불교판뜨라중 시대로 전환하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비밀집회판뜨라〉조차도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기초하여 보다 진보된 의례의 출현을 보일 뿐이

다. 『금강정경』의 경우 성취법에 나타난 금강계만다라의 해석은 석존의 연기법을 인간실존의 영역에 적용하려는 현실적 노력일 뿐이다. 〈비밀집회판뜨라〉

의 주준은 아촉금강인데, 아촉금강은 촉금강녀와 불이존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아촉금강은 마음을 상징하며 촉금강녀는 감각과 육체의 영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이존의 의미는 정신과 감각의 합일을 상징하며, 생사와 열반, 공성과 방편 등 모든 종교적 이원성을 극복하려는 의미가 있다. 불이존의 출현으로 인한 종교문화적 충격은 큰 것이어서 인도불전의 한역으로의 역경이 단절된 원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밀교를 수행할 자격은 팔지보살 이상의 지상보살에게 주어진다고 한다. 이면의 의미는 교학적 토대를 온전히 갖추고 공성의 이해에 능통한 보살만이 밀교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상징적 수사이다. 나란대학교와 티벳사원의 전통은 밀교수행을 실시할 제자를 선택하는데 계율의 수지와 교학적 토대를 신중히 검토하였다고 한다. 밀교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보면 붓다의 연기법

과 〈반야경〉의 공사상의 이해 정도에 따라 밀교에 쉽게 수용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 밀교의 의례적 장벽을 넘지 못하고 현교만을 따르기도 한다. 〈비밀집회판뜨라〉의 아촉금강과 촉금강녀의 불이존은 감각과 육체에 대해 공성을 수용하는 상징적 모습이다. 석존이 설한 연기법은 온·처·계·의 인간 실존에 대해 모두 법[다르마]이라고 설하였다. 육체와 감각 자체는 냉엄한 진리이자 현상적 실상만을 보여준다. 만약 육체와 감각으로부터 인간무명의 번뇌가 출현하는 것이라면 성불할 유정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 자체가 번뇌의 연원이라고 말할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인간의 마음과 객관세계가 무명번뇌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파불교시대에 번뇌가 외부로부터 기인한다는 ‘객진번뇌(客塵煩惱)’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대승불교의 논리에서 처음부터 해탈도 윤회하는

중생도 존재할 수 없다는 승의제의 해석이 최고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반야사상의 공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이해방식이 있다. 과거 스승들의 가르침을 요약해보면 대부분은 공성과 달리 독립적이고, 영원불변하거나, 단일한 정신, 혹은 물질적 실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존재는 상호관계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일 수 없고,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불변할 수 없으며, 다수의 소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독의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감각과 육체에 대한 공성의 관조가 〈비밀집회판뜨라〉의 불이존에 반영되어 있다. 공성의 깨달음에 의해 나타나는 인간실존의 최고의 종교적 표현이라 평가되는 이유이다. ※ 객진번뇌(客塵煩惱)란 외부에서 들어온 번뇌를 가리킨다

S-OIL
유천충전소
에스오일 선정 서비스 최우수 주유소
대표 이상 필(화음사교도)
경남 진주시 말티고개로 69(초전동) ☎ 전화 : 055-757-5143

건강약초
도라지와 하수오를 사랑하는 사람들
담금주 전시장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www.hasu5.com
대표 정이석(화음사교도) 010-5011-0506

동해중 소식

동해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 동해중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017년 11월 27일은 동해중학교가 개교한지 50주년 되는 날이다.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해중학교에서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동해 50년의 참뜻을 기리고 새로운 동해 100년 창조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 50년의 발자취를 종합하여 정리한 '동해 50년사' 발행을 필두로 동해 연혁실을 설치하고 지금까지의 학교 모든 자료를 연혁실로 전시하며 '동해 사이버 역

사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동해 명예의 전당(수석 졸업생 및 동해를 빛낸 영웅의 얼굴들)'을 정비·개선하며 현재까지의 동해 수상 기록물들을 전역 정비 및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로 기획팀을 구성하였는데 김진화 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획 소위원회, 김용민 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료 수집 및 원고 청탁 소위원회, 박미경 부장을 팀장

으로 하는 자료 편찬 소위원회, 황의수 행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금 조성 및 관리 소위원회와 연혁실 설치 및 사이버 연혁실 소위원회를 두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해중 동문회에서는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모금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 교직원도 심시일만 기금 조성 운동에 동참을 하여 사업의 성공을 염원하고 있다.

먼저 재단 관계자 및 지역인사와 동해중 동문, 퇴직교사, 학부모님들을 초청한 동해 50년사 발간 출판 기념회 및 개교 기념식을 추진하고, 다음은 개교 50주년 기념 및 관플렛 제작, 또한 학교 시설물 개선 및 보안 작업,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기금 모금 운동도 펼치고 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 만큼 후원에 협조하실 관계자분들께서는 동해중학교 행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중학교교장탁성달

Golden 미얀마 사진 전시



동해중학교 하봉길 수석교사 사진전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교문 갤러리(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로)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황금의 땅, 미얀마를 수시로 나들이를 하면서 미얀마의 불상과 불탑, 스님의 일상, 미얀마인들의 일상 속에 담긴 불심을 표현한 사진 6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일정은 10월 11일(수)-10월 18일(수)까지 8일간 열리게 되며 작가의 만남은 10월 11일(수) 오후 18:00에 진행된다.

하봉길 작가는 현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회원, 부산사진대전 추천작가, 부산교사사진연구회 자문위원이다.

9·12 지진 이후 지진정책 변화

행정안전부는 9. 12 지진발생 이후 지진 대응체계 완비와 지진 방재 종합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진 조기경보 전달체계 및 지진 대피소 정비, 지진대피훈련 실시, 시설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및 내진보강 강화, 민간소유 건축물 내

진보강 권장,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단층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9. 12 지진발생 당시 긴급 재난문자(CBS::Cell Broadcasting Service)가 지연 발송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되었던 송출체계를 2016년 11월 기상청으로 일원화시켰다.

<p>1 지진발생 정보전달은 기상청으로 일원화</p> <p>Before: 조기경보기상징, 송출(방안)보 전달체계 미원화</p> <p>After: 기상청으로 일원화('16년 11월)</p> <p>조기경보 기상청, 송출(방안)보 기상청 일원화</p>	<p>2 상황별 행동요령을 포함한 교육·훈련 확대</p> <p>Before: 책자위주, 문서위주의 교육과 홍보</p> <p>After: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학교와 연계하여 장소와 상황별 구체적 행동요령 확산</p> <p>책자위주의 교육·홍보 → 장소·상황별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학교와 연계하여 장소와 상황별 구체적 행동요령 확산</p>
<p>3 전국적으로 1만여 곳 지진대피, 구호시설 개선</p> <p>Before: 대피, 구호시설 미지정</p> <p>After: 옥외대피소 8,155개소, 실내구호소 2,489개소 지정관리 중</p> <p>공원·운동장 8,155개소 지정, 대피소 지정, 방화차·소방차, 구급차 등 지정관리</p>	<p>4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로 지진에 강한 도시 구축</p> <p>Before: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p> <p>After: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17년 12월말에는 모든 주택,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p> <p>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p>
<p>5 새금감면으로 민간 시설도 지진에 안전하게 지원</p> <p>Before: 내진성능 확보 시 지방세 일부 감면</p> <p>After: 국제 감면과 지방세 감면, 국제 감면, 지방세 감면, 국제 감면</p> <p>지방세 감면, 국제 감면, 지방세 감면, 국제 감면</p>	<p>6 건축물 지진 안전도 한 눈에 확인</p> <p>내진성능 표시, 부동산 중개대상물 내진성능 표시</p> <p>건축물 안전도 표시, 부동산 중개대상물 내진성능 표시</p> <p>건축물 안전도와 부동산 중개대상물 내진성능에 대한 표시를 확인</p>
<p>7 활성단층 조사 본격 시작</p> <p>Before: 미 실시</p> <p>After: 동남권 지역부터 우선 실시 (행안부, 원안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참여)</p> <p>동남권 지역 단층조사 실시</p>	<p>8 지진전문 인력과 예산 확대</p> <p>Before: -전문기 양성과정 부재, -중앙부처 지진예산 1,163억원</p> <p>After: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운영 (5개교(고려대, 강원대, 충북대, 전남대, 부산대), -행안부 등 102명 증원, -중앙부처 45명, 지자체 57명, -중앙부처 지진예산 3,669억원</p>

청소년 범죄, 불교적 연기의 접근 필요하다

피투성이로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유포되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예전에는 검색어 1위에 주로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올랐지만, 언제부터인가는 청소년 폭행 사건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최근에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1위로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강릉, 천안 등 유사 사건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보기에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해 그것을 바로보는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의 그 충격이 크다. 갈수록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흉포해 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는 방관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일까?

부산 여중생들이 동급생들을 잔인하게 폭행한 이 사건은 피해 상황이 SNS를 타고 확산하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폭력을 휘두른 학생들은 말투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장 골목으로 끌고가 소주병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

행했다고 한다. 더욱 기막힌 것은 피해자가 두 달 전에도 가해 여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바람에 이번엔 보복 폭행을 당했다는 게 피해자 부모들의 주장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출석 요구서를 여러번 보내고 찾아갔지만, 가해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이 청소년 범죄라서 지나치게 인위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범죄 수법이 잔혹한 데다 보복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사건이 알려진 뒤 청소년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문제를 불교적 연기법에 귀결해 바라보는 관점도 필요하다.

도덕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선(善)에 대한 관심보다는 악(惡)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도덕성의 유형을 사악함과 나약함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악에 대한 판단 폭행당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텔레스는 비도덕성의 유형을 사악함과 나약함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악에 대한 판단 폭행당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바람에 이번엔 보복 폭행을 당했다는 게 피해자 부모들의 주장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출석 요구서를 여러번 보내고 찾아갔지만, 가해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이 청소년 범죄라서 지나치게 인위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범죄 수법이 잔혹한 데다 보복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사건이 알려진 뒤 청소년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문제를 불교적 연기법에 귀결해 바라보는 관점도 필요하다. 도덕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선(善)에 대한 관심보다는 악(惡)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도덕성의 유형을 사악함과 나약함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악에 대한 판단 폭행당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각에서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도덕성 회복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초점을 둔 '개인 윤리적 차원'과 사회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둔 '사회 윤리적 차원'으로 나뉜다. 소년법 개정은 사회 윤리적 차원의 방법이다.

학생의 학업 중단을 막는 '학업중단 수려제', 청소년의 건전한 제사회를 유도하는 '청소년보호관찰 제도'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느 청소년 범죄자는 자신이 보호관찰 대상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범죄는 단순치 않다. 크고 작은 다양한 조건이 얽혀 있다. 그래서 불교적 가르침인 연기와 중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구체적인 실천 마당에서 연기와 중도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청소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접근하는 지름길일 것 같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부모교육지도사

다변화된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 올바른 부모관을 확립!

부모교육지도사란?

교육학과 심리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 역할, 청소년 이해, 감정코칭, 상황별 인성교육 지도방법을 지도하는 부모교육 및 인성교육 전문가를 말한다.

부모교육지도사 학습내용

부모교육의 이론과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통해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례중심의 학부모 상담을 위한 상담기법 등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대상

- 유아관련학과,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 및 재학생
- 학교 및 교육관련 학원교사, 방과후 교사
- 일반인, 직장인, 학부모 등

활동분야

- 교육기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 기타분야 : 돌봄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India Road

단비의 인디아 로드 4

인도 음식

광활한 국토의 나라답게 인도에서는 각 지역마다 선호하고 즐겨먹는 음식이 다르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전에 먹었던 음식을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렇게 음식 문화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도가 다 종교, 다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종교마다 금하는 음식이 다르고, 수많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맛과 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가 넓어 지역별 기후의 편차가 큰 것도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공통점은 다양한 향신료를 주로 쓰는 것과 밀가루를 화덕에 구운 'نان' 혹은 '짜파티'라 불리는 빵을 음식과 함께 곁들여 먹는 점이라 할 수 있다.

▲ 티베트 전통 요리 '텐둑'

이것은 인도에 도착해 가장 처음 먹었던 음식으로 '텐둑'이라 불리는 티베



▲ 티베트 전통 요리 '텐둑'

트 음식이다.

인도에서 티베트 요리를 먹다니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티베트 망명촌이 자리한 북부지역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텐둑은 한국의 수제비와 흡사했다. 그러나 채소를 훨씬 많이 쓰고 국물이 한국의 것보다 진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종종 야채 고기를 쓴다고도 한다.

티베트 음식은 한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고 비슷한 음식이 많아 한국 여행객



▲ 인도식 정식 '달리'

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았다.

■ 인도식 정식 '달리'

또한 가짓수가 많은 한국의 음식 문화와 비슷한 것을 꼽자면 인도식 정찬 '달리'를 꼽을 수 있다.

1인용 큰 쟁반 안에 서너 가지의 커리와 함께 난(화덕에 구운 인도식 빵)과 쌀밥 그리고 디저트까지 모두 나오는 음식이다. 제대로 저녁을 즐기고 싶을 때 혹은 결혼식 등 큰 행사가 있을 때 달리가 많이 나오곤 한다.

불/교/설/화

수레바퀴의 철학



설화: 조귀자
삽화: 김중훈

어느 날, 미란다 왕이 나선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알려졌습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나는 나의 부모님께서 나신이란 이름을 붙여 주었으므로 그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선일 뿐 진짜 나선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의 머리카락입니까? 몸에 난 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손톱이 나선입니까? 이가 나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부, 근육, 뼈, 내장 내지 혈액이 나선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의식(意識)입니까? 지각(知覺)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또 나선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나선이란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필경 그것은 공허한 음성(空聲)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나선은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존자의 말을 참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선이 왕에게 물었다. “왕이여, 당신은 무엇을 타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체 수레는 무엇을 가리켜서 수레라 합니까? 굴레(輪)를 말합니까? 바퀴(輪)를 말합니까? 아니면 명에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살(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합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또 달리 수레란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나에게 말한 것같이 나에게도 수레란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필경 그것은 공허한 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대왕께서 타고 오신 수레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대왕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폐하께서는 분명 수레를 여기까지 타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수레란 무엇이나

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라고 서야 어찌 기 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신하들은 나선 바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왕을 향해, “폐하, 저런 말을 듣고서도 바른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 안됩니다.”하고 왕에게 간언하였다. 그러나 왕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수레는 굴레, 바퀴, 명에, 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인연을 통틀어 방편상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에 불과하다.”

이 말을 들은 나선 바구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대왕은 수레의 의미를 잘 체득하고 계십니다. 먼저 대왕께서 저에게 물은 것도, 꼭 그와 같습니다.”

대왕이 감격하여 말하였다.

“아,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존자를 괴롭게 했으나 당신은 신묘한 대답을 하여 의심이 얼음같이 녹아 사라졌습니다. 만일 불타가 오셨다면 반드시 당신의 응답을 크게 칭찬 하셨을 것입니다.”하고 감사하였다. <나선바구경(那先比丘經)>

이것은 불교의 공, 무아사상을 드러내 보인 대화다. 존재의 참모습은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지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온 것도 아니다. 인과 연이 한데 모여 하나의 과를 형성한 데 이름을 붙인 것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공허한 이름에 집착하여 희노애락을 연출하고 호오염정(好惡染淨)을 일으킨다.

미란다(彌蘭)는 서기전 2세기 중엽 회람 식민지인 인도 영내

카이불왕으로 북인도 샤아기라성에 즉위한 왕이다. 왕은 특별히 불교를 믿지는 않았으나 불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이때 중인도 스님인 나선(那先) 비구를 만나 불교 교리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받았다.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 ⑦

梅 蘭 菊 竹

대나무(竹) 그리기

묵죽(墨竹)을 그리는데 먼저 전체적인 구도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줄기, 마디, 가지, 잎 순으로 그린다.

3) 가지
나무 가지는 마디 약간 위에서 큰 가지가 하나 나오고 그 가지에서 작은 가지 2개 가 나온다

2) 마디

심자형(心字形) 중간			
일자형(字形) 중간			
일자형(字形) 상구식			
팔자형(八字形) 하구식			
상구식(上鉤式) 내려다본위치			
하구식(下鉤式) 올려다본위치			



덕광(실보사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리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수상

대동농원 최첨단 아로니아 가공 공장 준공

위생적인 가공을 통해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아로니아 원액 분말 가공공장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불교총지종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아로니아 생과출시 1kg 8천원 (전국 무료배송)

해인사 장경판전, 세계 10대 도서관 선정

르 피가로 이모빌리에 최근호에 일곱 번째로



▲ 해인사 장경판전

판만대장경이 봉안된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도서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르 피가로 이모빌리에(피가로의 부동산특별판) 최근호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10선 중 일곱 번째로 선정되어 문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보 제 52호이자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한 장

경판전은 해인사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서 600여 년 동안 판만대장경을 보관해 오고 있다.

장경판전의 정확한 건립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15세기에 크게 증·개축한 기록이 있어 아마 15세기 중·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판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남북의 큰 건축물인 수다라장과 법보전, 해인사 고려각을 보관하고 있는 동·서 사간관전 등 4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장경판전은 판만대장경만 보존에 용이하게 바람의 방향이나 방습효과, 실내 적정온도 유지에 유리하게 특별 설계된 특징이 있다.

2017대장경세계문화추진(10. 20. ~ 11. 5.)을 준비 중인 합천군과 해인사는 이번엔 장경판전을 부분 개방해 축전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숲속관화여행’



박물관 교육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지난 2월부터 8월 13일까지 박물관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사립박물관협회의 공모사업인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통인쇄문화 인출체험을 통한 '나만의 목판화 T셔츠 및 에코백 만

들기' 등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문화의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을 개발하는 등 그동안 이수한 학생들이 13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017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또한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문화·관광·교육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생생문화재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강원도 지정문화재 7건을 중심으로 '목판본 삽화를 통한 전통문화학교' 프로그램을 6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숲속관화여행', '가족이 함께하는 숲속문화학교', '군장병 힐링캠프' 등 1박 2일 문화형 템플스테이는 융복합 문화관광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숲속관화여행'은,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학교수 및 외교관, MIT공대생 등 각 계층 외국인들의 1박2일 템플스테이로 실시되고 있다.

"내 작품 어때요?" 2017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숲속관화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MIT공대 학생이 직접 제작한 '나비' 작품을 들여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일본 도토리현 고교생들과 원주 영서고교생이 함께한 템플스테이 등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외국인들의 참여가 활발할 전망이다. 고판화박물관은 40분이면 도착하는 평창올림픽 경기장과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선학 관장은 "8월 21일부터 원주 호서중학교를 필두로 시작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인 제 8차 원주 세계고판화문화제 등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한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다양한 맞춤형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지로 학생들과 군장병, 시민들, 외국인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문의 및 신청은 고판화박물관 홈페이지(www.gopanhwa.com)에서 가능하다.

전화문의 033-761-7885

수계(受戒)

고정부장 법일

수계(受戒)는 불교 재가(在家)신도나 출가(出家)수행승 구별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와 율을 지키고 따를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수계를 주는 승려를 수계사(授戒師) 또는 계사라 하며 일정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수계식(受戒式)이라 한다. 밀교에서는 수계관정(受戒灌頂)이라 하고 삼매야계(三昧耶戒)를 받게 된다. 수계를 불법승 삼보 앞에서 올림으로 인해 "이제부터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불자로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생활을 유지해 나갈 것을 표명하는 자리가 된다. 불자로서 실천해야 할 행동 윤리인 계를 받아 지니는 의식 속에 수계의 핵심적 의미가 있다.

수계식이라는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이후 자신이 더 이상 불선업(不善業)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규범이 되어 준다. '이차피 지키지도 못할 것', '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마음만 불편하다' 등의 이유로 수계를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자각할 기회를 버리는 것이다.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행을 실천해 나가지 않는다면 고(苦)로부터의 해탈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은 계율 제정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고지식하게 계율의 조항만을 지키려

고 한다면 이 또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꼴이다. 계(戒)란 마음이 착한 습관성이 그 원뜻으로 규칙을 지키려고 맹세하는 결의를 말한다. 오계 중 불음주(不飲酒)를 맹세하면 그 후에는 계의 법(戒法)이 마음을 억제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법이다.

재가신도들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언, 음주로부터 벗어날 것을 맹세하는 기본 오계(五戒)가 있고 일반적으로 출가자에게는 사미, 사미니 10계와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가 있다. 대승 불교에서는 재가, 출가다 같이 성불을 위한 수행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이를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다. 이것이 대승계(大乘戒)이며, 십선계(十善戒), 삼취정계(三聚淨戒), 범망계(梵網戒) 등의 구별이 있다.

율(律)이란 불교 교단의 강제적 규칙을 말하는데 계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도덕과 비슷한 데 비하여 율은 타율적인 규칙으로 법률과 비슷하다. 율은 출가교단(出家教團)의 교단 규칙으로 단체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로 지키도록 규정하며 처벌도 따른다. 이런 계와 율은 원래 다른 뜻이었지만, 중국 불교에 있어서는 속어가 되었고, 이를 합해서 계율(戒律)이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켜야 불도인의 수행원리, 생활규범

이 되었다.

계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법개자(持犯開遮)가 있다. 지계(持戒)는 계를 반드시 지키는 것을 말하며, 범계(犯戒)는 더 큰 선을 위하여 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범에 해당된다. 개계(開戒)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계를 범하는 것으로 술을 약으로 써야 할 경우 우라든지 병자의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육식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된다. 차계(遮戒)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해야 하는 계를 말한다. 이처럼 계를 지킴에도 지혜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큰 선(善)이 되는가를 고려하여 경우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수계의식 중 연비(燃臂)는 승려가 되기 위한 득도의식을 할 때 참회와 서원을 하면서 행하였고 이후 재가자의 경우 오계를 받는 수계의식 때 연비를 하였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도 바칠 것을 맹세하는 상징적 의식이 되었다. 수계와 연비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의 상징인 것이다. 혹자는 수계 및 연비를 자주 받으므로 자신의 수행계율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수계를 많이 받을수록 상수보살이 된다는 것이다.

김경미, 금니 사경·사경변상도 기획전

9월 16일 ~ 10월 1일 서울 삼성동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묘법연화경변상도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결' 전시관에서 김경미 작가의 금니사경·사경변상도 기획전 '佛 - 금빛 세계로'가 개최

되었다. 사경(寫經)은 마음을 모아 경전을 한자 한자 베껴 쓰는 것으로,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1,7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금, 은사 대장경 등은 당시의 찬란했던 문화예술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면면히 이어온 전통사경기법으로 제작한 작품과 더불어 창작 금니사경까지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금니사경·사경변상도를 볼 기회를 가졌다.

전통공예 및 미술기반의 창의적 기획력 아이디어를 갖춘 작가를 선정하여 일년에 세 차례의 초대전을 개최하는데 이번 초대전은 지난 도예가 박성욱 'Blue Moon'展에 이은 두번째 초대작가전이다.

수인사와 함께하는 꽃보다 할매 할배 효잔치 후원금 모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와 독거노인,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급식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후원 보시 공덕으로 무량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계좌

계좌번호 : 301-0218-6488-31 (농협)

예금주 :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

불교총지종 수인사

제 6 회

테이오아 농르르기 예술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노래로 이루는 화합, 그리고 통일

2017년 10월 24일(화) 오후 1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합창경연

문수사 마야합창단 | 삼광사 화엄합창단 |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 흥법사 불광합창단

축하공연

총지중 부산 만다라합창단 | 총지중 마산 부림합창단 | 총지중 서울 마니합창단 | 가수 주병선

문의 02) 552 1080~3

www.chongji.or.kr

주최 불교총지중

주관 BBS 불교방송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금정구청 대한불교종단협의회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 우리불교 주광불교신문사